

“나눔은 생활입니다”

서울복지재단 나눔 네트워크 사회공헌 박람회



▲ 복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축하공연 모습

| 기사 : 최유미 (azzahihi@nate.com)
| 사진 : 서울복지재단

인상의 나눔을 모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를 엮어보려는 뜻이 담긴 「나눔의 네트워크, 사회공헌 박람회」가 서울복지재단의 주최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지원 기관인 서울복지재단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일반 시민 및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공헌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기업과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미래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선진형 사회공헌 모델을 보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복지시설과 기업 사회공헌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해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복지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삼성소리샘복지관,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 흥은종합사회복지관, 삼성안내견학교, 교보생명, 신한은행, 한국복지재단 등 약 50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등으로 부스를 꾸며 청각장애인 보장구 체험, 노인생애체험,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범 등 복지시설과 기업의 특징적인 복지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중 삼성소리샘복지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보장구 체험, 청력진단, 수화공연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에 앞장섰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함께 칠보그리기, 장애인들의 재활용 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노인생애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흥은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결식노인식단 전시 및 시식을 통해 급식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박람회 이틀째인 22일(토)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복지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영보장애인 화관부, 다운복지관 재즈댄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댄스, 서울노인복지센터 궁중무 등 시내 복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청소년 등 아리 10개팀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 행사에 참여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